

9

선박해체업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	남	나이	68세	직종	선박해체직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나○○(68, 남)은 40세 때인 1975~2003.9. 28년 간 K(주)에서 선박해체작업을 하던 중, 2003.4.16. 원발성폐암(좌하엽, T3N3M0) 진단을 받고 2003.10.26.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나○○은 선박해체작업시 잡역반 책임자로 선박내부의 선체 해체작업, 유창(선박내부의 연료저장고) 청소, 선박철제 절단작업시 화재방지를 위한 소방업무를 담당하였다. 선박해체작업시 해체된 선박 중 과거 20년 전(1980년대 초)에 건조된 선박내부의 선체 및 벽체는 보온재의 95%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 선체 해체시 가장 먼저 벽체 및 격벽을 허물기 때문에 이때 선박내부에서 작업자가 분진을 들어마실 수 밖에 없었고 해체시 내부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연소물질제거를 위하여 선체 바닥을 절단하여 뜯었는데 이 작업도 상기 근로자 기술자이자 책임자이므로 많은 양을 하였다고 하였다. 유창청소작업은 펌프로 폐선의 연료저장고 연료를 제거한 후 남은 기름을 상기 근로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닦아내어 용접절단작업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작업이었고, 소방작업은 근로자가 물탱크에서 연결된 호스로 물을 뿌려 선체내부 용접절단작업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일어나는 화재를 제어하는 작업이었다.



3 의학적 소견

나○○은 2003.4.11. 등쪽 어깨부위에 혹이 발생하여 양성종양(epidermal inclusion cyst)제거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던 중, 흉부방사선소견상 폐종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나 2003.4.16.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폐우하엽의 3.0 cm 크기의 폐암 3기(T3N3M1)소견이 발견되었다. 10.9. 흉부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우하엽 폐암 4기(T4N3M1)로 진단되어 10.26. 상기 근로자는 사망하였다.

4 결 론

나○○의 폐암은

- ① 원발성 폐암으로 임상적, 방사선학적으로 진단되었는데,
- ② 상기 근로자의 선박해체작업시 폐암 발생 유해인자(석면)의 노출가능성이 높았고 최초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하여 폐암발생에 충분한 기간인 28년 이상 경과되어 발생하였으며,
- ③ 상기 근로자의 흡연력이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발생의 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,

근로자 나○○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.